**일본의 학교(초, 중, 고, 대) 동아리 문화**

22101520 일본어일본학과 김가영

**1) 서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동아리 활동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 그만큼 학교와 나라에서 동아리 환경을 잘 구축해 놓았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나 학원을 소재로한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정도만 봐도 동아리 활동의 비중이 높고, 동아리를 주제로 만들어진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만큼 일본은 학창시절의 동아리 활동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겪어보지 못했기에 항상 궁금했던 일본의 동아리활동을 이번 기회에 일본이 왜 동아리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초, 중, 고, 대학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보고자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본의 ‘동아리’ 라는 것에 정의를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학교들은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것이 있고, 그 요령에 동아리는 학교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첫째, 스포츠와 문화, 학문 등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 동호회 학생들이 교직원 의지 하에 주로 방과 후에 자발적 ·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 둘째, 스포츠와 문화 및 과학 등으로 사랑하고 학습 의욕의 향상이나 책임감 연대감의 함양 등에 이바지하는 것. 셋째,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과정과의 관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이라 명시되어 있다.

**2) 초등학교 동아리 활동**

일본의 초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部活(부활동) 이라고도 하지만 クラブ(클럽)이라고도 불린다.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클럽이라고 부르고 부활동이라고 부르는 건 중,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라고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시간에 입부하고 싶은 클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여러 개의 동아리를 체험해볼 기회가 생긴다. 인기있는 동아리에서는 추첨제를 사용한다고도 한다. 동아리 활동은 일반적으로 4학년 이상의 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6교시에 필수로 진행된다. 보통은 1시간 정도 활동하지만 활동이 많거나 길어질 경우 2시간을 할 때도 있다.

교사의 지도 아래 운동계, 문화계, 선택적 클럽, 클럽과 조금 다른 분야지만 위원회로 나누어져 활동한다. 운동계는 야구, 검도, 배드민턴, 축구 등이 있고, 다른 학교와의 경기, 지역 대회에 참여한다. 문화계는 합창, 연극, 댄스, 요리, 컴퓨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행사나 발표회에 참여한다. 선택적 클럽은 오케스트라나 합창, 브라스밴드(금관악기+타악기로 만들어짐) 등의 종류가 있다. 학교마다 분야가 다르고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위원회는 5, 6학년만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함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는 단체이다. 대표 위원과 집회 위원의 아래 방송, 미화, 홍보 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한다.

**2-2) 초등학교 동아리 폐지 사건**

앞서 말한 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동아리를 폐지한 학교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온전히 학교에서 부활동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학교에 오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스크의 종류는 부활동을 하면서 따라오는 각종 사고들, 교원들의 동아리 책임 부담, 장시간 근무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실제로 나고야시의 초등학교들은 폐지를 한 곳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폐지를 한 학교 중에서는 지역의 클럽 서클이나 스포츠 소년단 등 클럽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초등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을 필수가 아닌 선택가입으로 바꾸고 학교에서 좀 더 외부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 초등학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더 많으니 학교간 도와가며 서로 잘 운영해 앞으로 더욱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초등학교 동아리가 필수였다면 중, 고등학교는** 선택이다. 자주적 ·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고등학생의 동아리 가입률 조사를 했을 때 2018년 기준 중학생의 가입률은 82.1%, 고등학생은 65.8%로 50% 이상이 아직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머지 30%의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을 일본에서는 귀가부라고 불리는데, 단어 그대로 학교 수업이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칭한다.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주로 주 2~4 회 활동을 한다. 중, 고등학교의 동아리는 입학하고 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각 동아리들이 나와 소개를 하거나 권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동아리를 선택하면 임시 입부라는 기간을 거친다. 임시 입부란 본 동아리에 가입 전 체험기간으로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2주 정도 임시부원 체험 후 입부 신청서를 통해 동아리에 가입해 정식 부원이 된다. 임시 입부의 장점은 퇴부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다. 계속 활동하던 분야가 아닌 학생일 경우 호기심에 가입 후 자신과 맞지 않음을 깨닫는 경우도 생기는데, 임시 입부는 자신에게 더 맞는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 고등학교의 동아리는 운동부와 문화부, 학생회로 나누어진다. 운동부는 대체로 축구부, 야구부, 배구부, 수영부 등이 있고, 문화부는 취주악부, 합창부, 미술부 등이 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퀴즈부, 미식축구와 같은 색다른 동아리들의 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운동부는 지역 대회, 현 대회 등으로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빈도로 연습에 참여한다. 문화부에 비해 엄격한 동아리가 많다고 한다. 문화부는 예술과 취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다. 각 동아리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콩쿠르나 전시회를 위한 기술을 닦고 작품을 만든다. 운동부에 비해 일정 및 활동이 느슨한 것이 특징이지만, 취주악부와 동아리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학교의 문화부에서는 운동부 수준으로 엄격한 연습을 하기도 한다.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외의 여러 임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한다. 초등학교의 위원회는 대표 위원이 아래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함께 활동하는 방식이었다면 중, 고등학교의 학생회는 전교생의 의견을 듣고 가장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활동한다. 또, 학교의 각종 행사 등을 기획하거나 운영하기도 하고, 축제가 있을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거의 한국의 학생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활동시간은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 보통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2~3시간을 일주일에 3~4회 정도 활동한다. 운동부는 상황에 따라 더 길게 활동을 하기도 한다. 평일 오전에 활동을 하는 동아리도 있는데 거의 운동부나 취주악부다. 아침 7~8시경까지 연습을 한다.

**3-2)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장단점**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진중한 분위기로 활동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장점만큼 단점도 있다. 장점으로는 첫째, 고난을 함께 견디며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동료의식이 생긴다. 둘째, 선생님, 선배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익숙해진다. 셋째, 부활동을 하면서 오는 기회에 많이 도전하면 사회에 나갔을 때 메리트가 생긴다. 단점은 첫째, 부활동 후 체력이 부족하고, 부활동 시간과 공부 시간 배분을 잘 못하게 될 시 성적이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팀원과의 의견충돌 후 관계회복이 되지 않으면 학생 간의 분열이 생긴다. 셋째, 유니폼, 악기 등의 비품구매에 돈이 많이 들어 금전적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부활동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공부시간과 부활동 시간을 잘 배분하는 능력을 키워 계획을 세워야 하고, 서로서로 이해하며 부활동을 해야 한다. 동아리 비품은 선배나 형제에게 중고로 물려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에 본인이 고심해 계획적으로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3) 중학교, 고등학교 블랙동아리**

중, 고등학교 동아리에서도 앞서 말한 초등학교에서의 동아리 폐지 건과 원인과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블랙 동아리’ 라고 하는데 억지로 장시간의 힘든 연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고문으로 동아리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힘든 노동 환경을 가리키는 경우를 말한다. 학생의 경우 동아리에서 하고 있는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대회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게 된다. 경기, 대회 기간에 쫓겨 엄격한 질책을 받고 휴식시간도 없이 평일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모여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 또, 방학에 하루 종일 연습을 하러 모이는 날도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컨디션이 무너지는 학생들이 많이 생긴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주말에 모이는 경우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래의 학교 업무 이외에 상당한 시간을 동아리 시간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가혹한 환경이 펼쳐지면 동아리 활동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없어진다. 블랙 동아리가 생기는 이유는 동아리의 강제화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국가가 발표한 학습 지도 요령에는 동아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립 중학교의 2020년 동아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 32.5%가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동아리를 가입하게 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가장 블랙동아리가 심한 운동부의 경우 ‘본연의 자세에 관한 종합 지침’을 만들었다고 한다. 적절한 운영을 위한 체제 정비, 합리적이고 효율적, 효과적인 활동의 추진을 위한 노력, 적절한 휴식 일 등의 설정,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환경의 정비, 학교 단위로 참가하는 대회 등의 재검토. 사실 당연히 해야 마땅한 일들임에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욱 개선이 되어 행복한 동아리가 되기를 바란다.

**4) 대학교 동아리 활동**

대학의 동아리는 동아리와 서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자치회가 있다. 동아리와 서클의 차이점이 있다면 동아리는 취업준비와 대회나 경기를 통한 스펙 쌓기 활동이 중심이고 중, 고등학교 시절과 마찬가지로 활동 날짜는 일주일에 5 ~ 6일 정도가 일반적이다. 활동시간은 18~21시 사이. 운동부의 경우 대학에서는 고교 시절보다 상하 관계나 동아리 안의 규칙이 더 엄격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동아리는 학교 주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인 단체로 처리되어 금전적이나 시설적인 면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서클은 동아리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취미처럼 활동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주에 2회정도라고 정해져 있지만 본인의 시간에 맞춰 출석해도 괜찮다.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인 서클이 있지만 동아리보다 지원이 적다. 공인 동아리의 조건은 학교마다 개설한 지 몇 년 이상, 서클 성적 등이 있다. 그렇기에 대부분 비 공인 서클로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회의 경우 이들은 보통 집행부라고 불린다. 학생들에게 모은 회비를 통해 학교의 발전, 학생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환원하기 위함을 목표로 두고 활동한다. 1주에 1번 정도 회의 시간을 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학교 대회, 학생 간의 교류회 등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4-2) 대학교 동아리 장단점**

서클보다 동아리가 대학생활을 하기엔 많이 힘들지만 이들이 동아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취업이 유리하다.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은 취미를 즐기기 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얻거나 갈고 닦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취업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싶은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께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서로가 서로를 높일 수 있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동아리인 셈이다. 또한, 대학 운동부 동아리를 나오면 회사에서 좋은 이미지로 보이기 쉽다고 한다. 동아리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운동부에서 동아리 활동만이 아니라 대학 공부도 병행할 수 있는 체력, 인내심과 끈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류가 쉬워진다. 분야나 목표가 같은 타 대학의 동아리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전통 있는 동아리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선배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업계 동향 등을 알 수도 있다. 셋째, 지원받기 쉽다. 동아리는 학교 주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인 단체로 처리되어 금전적이나 시설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점은 역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부활동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공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활동에서는 높은 성적을 받아도 전공 성적은 낮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4-3) 대학교 서클 장단점**

서클은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즐기기 위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곳이다. 그들이 동아리가 아닌 서클에 가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벼운 분위기다. 동아리에 비해 서클은 가볍고 느슨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많다. 그래서 활동 날짜도 동아리만큼 많지 않고, 출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동아리의 운동부는 대회나 시합에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서클의 운동부는 그 스포츠를 취미 수준에서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신입생들이 보통 서클에 많이 들어가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들어가는 이유가 많다. 동아리는 선후배 간의 상하관계가 엄격한 경우도 있고, 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신입생이 들어가기엔 버거울 수도 있다. 하지만 서클은 선 후배 간의 관계도 엄격하지 않고, 술자리 동아리 활동시간이 적기 때문에 휴일에 부원들끼리 편하게 술자리를 만들어 친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둘째, 시간적 여유가 있다. 서클의 경우 활동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서클 활동이 없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서클을 가입해 번갈아 가며 활동할 기회도 생긴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활동시간도 2시간 정도로 한다. 셋째, 분야가 다양하다. 서클은 인원만 있다면 새로운 동아리를 만드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저글링, 다이빙, 여행 서클 등 다양하고 색다른 분야의 활동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된다. 단점으로는 깊은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친목 모임이 많지만 그만큼 그런 모임 안에서 다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서클은 대부분 2학년 때 은퇴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서클 은퇴 후 따로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기기 십상이다. 그리고 취업준비가 힘들다. 서클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취업에 메리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아리보다 적은 것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펙을 쌓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동아리에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나 인내심을 키우며 충실한 대학 4년을 보내고 싶고, 내가 대학에서 얼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서클로 향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대학 생활 선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초, 중, 고, 대학의 동아리까지 조사하며 살펴본 결과 일본의 동아리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보다 훨씬 활성화가 잘 되어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슷한 듯 학교마다 활동이 차이가 있었다. 또, 동아리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한국과 달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동아리 활동을 하면 입시에 힘을 쏟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며 즐겁게 보낸다면 자신과 맞는 진로를 찾기도 쉽고, 여러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출처>**

1) 초중고 동아리 활동 관련

<https://g-lang.co.jp/blog/school_life/1139/>

<https://www.meikogijuku.jp/meiko-plus/junior-high-school/200413-01.html>

<https://passing-notes.com/column/202417/>

2) 나고야시 초등학교 동아리 폐지에 대해서

<http://kobato.net/urawa_b/wp-content/uploads/4v1b99ws/89d883-%E6%84%9B%E7%9F%A5%E7%9C%8C-%E5%B0%8F%E5%AD%A6%E6%A0%A1-%E9%83%A8%E6%B4%BB-%E5%BB%83%E6%AD%A2>

3) 초등학교 동아리 실태, 나고야시 동아리 폐지건

<https://news.yahoo.co.jp/byline/ryouchida/20180309-00082499/>

<https://www.city.nagoya.jp/kyoiku/page/0000051145.html>

4)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유

<https://news.yahoo.co.jp/byline/senoomasatoshi/20190906-00141487/>

5) 중학교 부활동 실태 조사

<https://www.meikogijuku.jp/meiko-plus/junior-high-school/200413-01.html>

6) 블랙동아리 관련

<https://note.com/aschool_junior/n/n7c5dacd6cba9>

<https://berd.benesse.jp/special/datachild/comment01.php>

7) 대학 동아리와 서클의 차이점

<https://manabi.benesse.ne.jp/lab/student/school/school061/index.html>

<https://www.tnews.jp/entries/43>

<https://amaino.me/blog/university-life/for-university-student/club-or-circle/>

<https://dentsu-ho.com/articles/733>

8) 대학 동아리의 장단점

<https://shukatsu-ichiba.com/article/13371>